

▶ 우리나라 두 번째 규모의 아쿠아리움.

밤바다의 도시 여수의 또다른 매력

전남

미항의 도시 여수가 밤바다의 도시가 됐다. 노래한 곡에 여수의 밤바다에 낭만이 그득 채워졌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고 노래하는 '여수 밤바다'. 2012년 발표된 비스커버스커의 곡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여수로 달려가서 그곳의 밤을 만나고 싶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여수. 밤바다로 이야기되는 여수지만 이곳의 낮도 특별하다. 밤을 만나기 위해 먼저 여수의 낮을 맞아 보자.

여수의 낮은 밤만큼 아름답다

한파 이겨낸 붉은 매력 오동도

여수는 365개의 섬이 보석처럼 박혀있는 섬의 도시다. 섬 사이사이로 바다가 빛을 내고 있다. 반짝이는 바다와 그윽한 섬의 풍경이 어우러진 곳. 오동도나 들이를 빼놓을 수 없다. '오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섬은 '동백섬', '바다의 꽃섬'으로도 불린다. 붉은 동백의 정취를 그리며 오동도로 간다. 육지와 섬을 잇는 방파제는 걸음걸음 이야기를 나누며 걷기에 부담없는 거리다. 동백 열차도 유명하다. 성인 편도 요금 800원.

127,000㎡의 작은 섬은 험난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없다. 특별한 준비 없이 시간만 쟁겨서 가면 된다. 동백꽃은 강한 해풍을 견디며 오랜 시간 꽃을 피워내지만 얼마전 들이닥친 한파와 눈 탓에 흐드러졌던 동백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한파를 이겨낸 동백꽃이 그나마 아쉬움을 달래주며 붉은 매력을 뽐내고 있다.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꽃말의 동백, 오동도는 사랑의 섬으로도 통한다. 부부목, 연리지 등 사랑을 담은 나무가 자리를 잡고 있다. 서로를 의지해 서있는 부부목 사이를 함께 걸으면 1000년의 인연이 이어진다고 한다. 얇은 대나무인 시누대가 서로를 붙잡고 서서 만든 터널도 이색적이다. 고요한 숲길을 걸다가 이곳이 바다라는 것을 잊을 때쯤이면 바다가 눈부시게 쏟아진다. 오랜 시간 오동도를 두드려온 파도는 소리바위, 병풍바위 등 멋진 암석해안을 만들었다.

흰 고래 벨루가의 애교 아쿠아리움

자연이 만든 바다 위 풍경을 눈에 담은 뒤 사람이 만든 바닷속 풍경을 쫓아 가보자. 여수에는 우리나라 두 번째 규모의 아쿠아리움이 있다.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연중 무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다양한 해양 생물을 눈으로 보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 생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하루 두 차례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는 펭귄, 바이칼 물, 바다사자 등의 생태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곳의 명물, 흰 고래인 벨루가 한 쌍의 애교도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다. 하루 5번 신나는 아쿠아 판타지쇼도 펼쳐진다. (문의: 061-660-1111 http://www.aquaplanet.co.kr/yeosu)

국내 최초 해상케이블카

하늘에서 여수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다. 바다 위를 지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케이블카가 오동도와 돌산공원을 오간다. 오동도 쪽의 해양정류장 전망대는 아파트 25층 높이로, 구름다리를 건너서 간다. 케이블카에 의지해 10분 정도 바다를 가로지르면 반대쪽 놀이 정류장에 다다른다. 바닥이 강화유리로 되어있는 크리스털 캐빈을 타면 발 아래로 아찔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여수의 낮과 밤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팀이 있다. 케이블카를 타고 반대 정류장으로 건너가 낮을 보면 뒤, 해가 진 뒤 다시 케이블카에 오르면 여수의 야경을 내려다 볼 수 있다. 평일 밤 10시, 토요일에는 밤 11시까지 운행된다. 성인을 기준으로 일반 캐빈은 왕복 1만3000원, 크리스털 캐빈은 왕복 2만원이다. (문의: 061-664-7301. http://yeosucableca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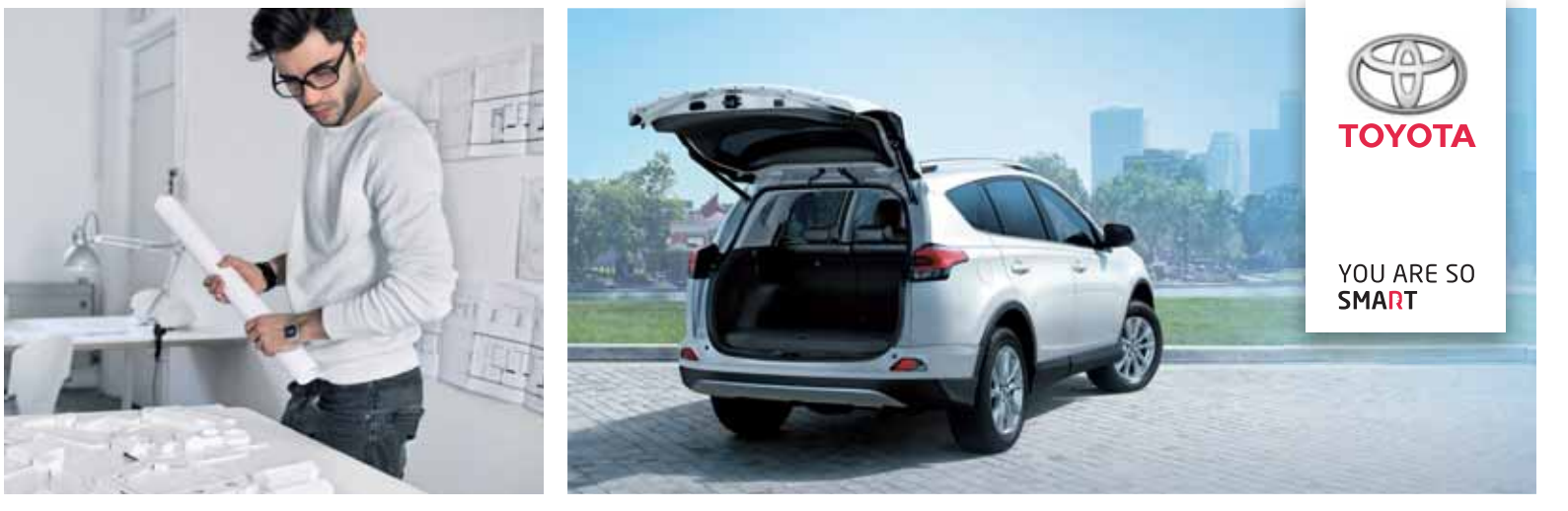


바다 보면서 러닝머신-히든 베이 호텔

그윽하게 또 느긋하게 여수 바다를 느끼고 싶다면 히든 베이 호텔을 숙소로 선택해보자. 131개의 객실이 모두 바다를 향하고 있다. 눈부신 한낮의 여수 바다와 야경이 투영된 낭만적인 여수 밤바다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파도 소리를 따라 호텔 주위로 난 산책로를 걸으면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호텔 2층 테라스도 매력적인 장소 중 하나다. 날이 풀리면 테라스에 카페가 마련되기 때문에 바다에서 즐기는 커피 한잔의 시간도 가능하다. 바다로 둘러싸인 멋진 풍광의 레스토랑에서 먹는 스테이크 맛도 일품이다. 맛은 물론 전라도의 넉넉한 인심까지 더해진 풍성한 식사가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사우나와 노천탕, 야외 풀장까지 모두 바다와 어우러져 있다. 바다를 보면서 러닝머신을 뛰는 기분도 이색적이다. (문의: 061-680-3000, http://hiddenbay.co.kr)



바다에 왔으니 바다의 맛을 보자. 두 손으로 아무렇게 만나야 하는 '밤도둑', 계장 백반으로 유명한 '등가 계장'이 있다. 1인당 8000원이면 간장·양념 계장을 무한 리필로 원없이 먹을 수 있다. 조기매운탕을 비롯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10여 가지의 반찬도 정갈하다. 양만 따지는 곳이 아니다. 맛으로도 소문이 자자하다. 간장에서 내공을 엿볼 수 있다. 계피, 감초, 영지버섯 등 15개의 한약재를 넣어 만든 '특허 받은 간장'이 밥그릇을 부지런히 비운다. 양과 맛 거기에 건강까지 더해졌다. 한약재 간장에, 양념 계장은 매실 엑기스로 새콤한 맛을 냈다. 소화에도 좋다. 계 육수로 만든 김치 양념에는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깔끔하다. 우리 바다에서 잡은 국내산 싱싱한 돌게 만을 사용하는 것도 이 집의 특징이다. 꽃게보다 작고 단단 돌게는 감칠맛이 난다. 딱찬 속살은 쫄쫄하게 입에 붙어서 깊은 맛을 낸다. (위치 : 여수시 봉산동 282-10번지, 061-643-033)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광주일보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광주일보 김진수 기자 jeans@



YOU ARE SO SMART



SMART EVOLUTION
스마트의 진화, 스타일의 완성
이제 RAV4와 함께하는 당신의 생활에 스마트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2016 ALL NEW RAV4
토요타 광주 전시장 : 062-371-8383 (운천역 3번 출구)
토요타 전주 전시장 : 063-273-3222 (덕진동 원광대 한방병원 인근)